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The Conditions of the Entrepreneurial Laver Culture

金 連 守*

Youn-Soo Kim

目 次

- | | |
|---------------------------|-------------------------------|
| I. 序 論 | 2.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展開 |
| II. 海苔養殖經營의 性格 | 3. 漁家養殖과 企業의 養殖과의 並存關係 |
| 1.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性格 | IV. 現段階에 있어서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限界 |
| 2. 海苔漁家經營의 性格 | 1. 海苔養殖業의 特殊性에 起因한 問題點 |
| 3. 海苔養殖經營形態의 分類 | 2. 海苔養殖經營의 管理上 問題點 |
| III.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과 展開 | 3. 社會的인 問題點 |
| 1.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 | V. 結論(要約 및 展望) |

I. 序 論

1984년도(해태생산년도)의 해태 생산량은 5천 6백만束이 生産되었다. 이 生産量은 10年前의 海苔 生産量 2千萬束 水準과 比較하면 道약적인 발전이다. 10년전과 비슷한 農事자와 漁家數(38,188호)에 의한 生産량의 발전은 産業적으로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날로 고갈해가고 있는 漁業資源의 實情으로 볼때 産業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인의 기호식품인 海苔가 國民所得의 向上으로 需要가 增加趨勢에 있는 時點에서 볼때도 해태양식업의 발전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約 300年以上의 역사를 가진 海苔養殖業이 최근에 비약적인 發展을 하게 된 것은 1979년도부터 새로운 기술인 浮流式養殖方法과 해태종합처리장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生産성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출현한 기술을 채택한 經營은 漁家經營과는 다른 性格을 띤 企業的 經營으로 成立하며 절대 다수의 海苔養殖漁家와 並存하고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새로 출현한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要因을 고찰 분석하고, 企業的 海苔養殖經營과 漁家經營과의 關係를 파악·比較함으로써 앞으로의 해태양식업을 展望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企業的 經營形態와 漁家經營形態와는 어떻게 區分되고 經營的 性格의 차이는 무엇인가, 企業的 經營의 어떤 배경에 의해 成立되었는가, 그 成立要件은 무엇이며 어떻게 成熟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현재의 漁家經營은 모두 企業經營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발전할

* 麗水水産專門大學 專任講師

수 없다면 그 限界點은 무엇인가. 이와같은 것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存在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究明하고자 한다.

Ⅱ. 海苔養殖經營의 性格

해태경영은 해태상품을 생산하는 단위조직체라고 규정할때에 크게 2가지로 分類할수 있다.¹⁾ 하나는 고용노동자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企業的 海苔養殖 經營(이하 “企業經營”이라 함)과 家族勞動(또는 自家勞動)에 의하여 所得을 追求하는 海苔漁家經營이다.

해태 생산의 단위조직체인 해태경영은 資本主義의 社會에 있는 한 企業的 해태경영이라는 形態를 취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企業的 경영 이외에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로부터 계속되어온 家族勞動의이라는 漁家形態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기타의 形態도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漁家經營으로 부터 企業經營의 이행과정에 있는 存在形態로써 양극의 經營形態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던 漁家經營과 企業經營은 어떻게 規定되는 것인가. 우선 兩者의 性格을 究明하기로 한다.

1. 企業의海苔養殖經營의 性格

海苔養殖業을 영위하는 企業經營 즉 資本家の 海苔企業經營라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利潤을 獲得하기 위해 多數의 勞動者를 雇用하고 商品으로써 海苔를 生産하는 單位組織體이다.²⁾ 이것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企業經營이라는 것은 먼저 多數의 勞動者의 意識的 計劃的 協業에 의하여 海苔를 生産하는 單位組織體이다. 이와같이 多數勞動者가 같은 時間 같은 공간에 같은 使用者의 지휘아래서 일한다는 것은 企業經營의 本質이다. 왜냐하면 이 多數의 勞動者 없이는 그 使用者로하여금 많은 利潤을 얻게 하는 것은 困難하고 또 그가 手勞動으로부터 해방하여 진정한 자본가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多數의 勞動者가 일하고 있는 單位組織體인 한 해태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단위조직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와같은 多數의 勞動者를 使用하여 그에 대응한 勞動의 구입에는 많은 金額의 貨幣支出이 當然하다. 貨幣와 組織이 없이는 多數로 분산되고 相互間이 獨立된 個別的 勞動過程을 하나로 결합시킬수 없다.

支出된 貨幣를 回收하는 것은 生産物을 商品으로 판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企業經營은 生産物을 商品으로써 生産하는 單位組織體라고 하는 것이다. 투하된 資本의 단순한 貨幣의 回收는 別의 의미가 없고 그 金額이상의 貨幣 즉 일정액이상의 利潤을 동반하여 回收해야 資本투하자의 의미 있는 行動이 된다.

1) 張設鏞, 水産經營學 親學社, (1966), p.20 참조.

2) 吉田寬一編, 農業의 企業形態, 地球社, (1979), p.105.

이와같이 企業經營은 利潤을 目的으로 資本이 투하되고 海苔生産이 行하여 지는 單位組織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企業經營의 經營者는 投下資本을 有効하게 機能시켜서 利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經營目的에 필요한 勞動力을 확보하고 계속적고용과 生産手段의 再投資에 의하여 계획적 지속적으로 海苔를 生産하고 擴大再生産이 行하여져야 한다.

만일 利潤이 없거나 적정한 利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資本의 他産業으로 이동이 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資本家에 있어서는 적어도 他産業의 利潤이 獲得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資本投下の 조건이 된다.

2. 海苔漁家經營의 性格

漁家란 經濟의 全部 또는 一部를 漁業收入으로 充足하고 있는 經濟的 構成體라고 규정³⁾함으로써 海苔養殖漁家란 自家勞動力으로써 그 本質은 가족의 생계유지와 사회적 지위의 지속 및 生活消費를 目的으로 海苔를 생산하는 經濟的 生産體라 할 수 있다. 漁家の 經濟構造는 經營(生産)과 生活(消費)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漁家經營의 性格을 구명하는데 있어서 漁家は 生活과 生産수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과 가계가 동시적, 통일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경영부문만 별도로 분리되어서는 별의미가 없다. 이는 경영부문만으로는 재생산을 할 수 없고 생활(소비)를 포함한 경영전체로 해서만이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漁家經營은 노동력의 재생산으로써 行하여지고 최종적으로 가계가 목표이며 가계를 위한 경영이 되어야 한다.⁴⁾ 가계는 소비이고 소비를 위해생산이 규정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漁家生産은 消費에 대응한 것이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漁家經營은 生産수단을 갖는 경영자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러므로 賃勞動者와는 다르게 스스로 勞動過程을 지휘 통제하고 生産物을 取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기위해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海苔漁家は 소득을 목표로 商品生産을 영위하고 소득은 소비를 위한 존재라고 할수있다. 가족경영은 노동력의 재생산으로써 최종목표가 소비로써 行하여지고 가계를 위한 경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漁家經營의 主體性은 生産(經營)에 있는 것이 아니고 生活(가계)에 있는 生計主義 原則에 입각한 경영을 의미한다.

漁家所得을 위한 가계비의 부족은 어업의 소득에서 보완하는 것은 가계비가 경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겸업어가의 경영이 어업의 소득에 의존하면서도 의연히 존속하는 것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어업의 소득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겸업어가를 農業과의 겸업의 입장에서 비교하면 농업은 現物所得을 위주로 하는 자급자족적 성격이 강하면 海苔 양식은 소비(支出)를 전제로한 現金所得을 추구함으로써 商品生産的인 性格이 農家보다 강하게 다르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구별됨으로써 상품생산의 기업경영과도 다르고 임금노동자와도 구별된 경제단위, 생산

3) 吉田寬一, 農業の企業形態 (1979) pp.23~30.

4) 張設鎭, 前掲書, p.21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단위로써의 자립적 개별성을 갖는다.

한편 海苔양식업의 產業的 기능측면에서 보더라도 海苔 어가경영에 의하여 海苔양식업이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海苔어가경영의 존재없이 는 발전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이의 발전에 의하여 海苔양식업이 발전될 것 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漁家經營은 企業的 經營의 초기적 생산양식으로써 현재에도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맹아적 발전단계이다.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社會的 分業이 진전하여 生産力이 진전됨에 따라 商品生産은 一般적으로 深化한다. 非資本家經營인 漁家經營에서도 勞動力은 現金所得없이 는 불가능하다. 이 現金所得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商品生産은 必然的이다. 이는 資本主義的 商品經濟法則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형태는 漁家經營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결국 漁家經營의 生産手段 및 生産力條件의 如何에 따라 漁家經營의 發展정도는 달라진다.

3. 海苔養殖經營形態의 分類

一般적으로 經濟形態를 가족경영형태와 企業的經營形態로 區分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經營規模의 大小를 區分할때와 同一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海苔양식과 유사한 농업에서 예를 든다면 經營形態區分 기준을 利潤追求에 中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구성요소——예를들면 土地利用 중심인 경우에는 土地面積, 企業農이나 集團農場은 勞働者數, 축산경영에는 가축수, 혼합경영은 총투자액——의 크기로서 分類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家族經營과 企業經營의 分類基準은 經營規模의 크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 왜냐하면 經營의 크기는 經營要素가 결합하여 외부에 노출된 量的인 크기로서 質的차이와는 區分의 限界가 반드시 같지 않다. 家族經營은 企業經營에 對한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性格 규명에서 區別했듯이 質的인 차이에서 보는 개념이다. 따라서 企業經營이란 企業的 性格이 강한것을 企業經營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企業經營과 漁家經營의 分類기준은 企業的 性格에 대한 규정에 달려있다.

清光照夫教授는 그의 論文 「企業的 漁家漁業의 存立條件에 關한 研究」에서 企業的 性格을 「利潤을 최대한 계속적으로 發揮하게끔 資本과 勞働의 生産要素를 合理的이고 意識的으로 조직화하여 生産力向上의 實現을 위한 主體임과 동시에 再生産의 條件을 구비하는 것」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도 이와같은 개념을 援用하여 海苔양식경영을 區分하고자 한다.

海苔養殖經營에서 企業的 性格은 企業資源을 효율적으로 結合시켜 最大의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면 生産性이 높은 기술집약적 生産方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海苔육성분야에서의 高生産性 技術은 부류식양식이고 가공분야에서는 海苔종합처리장 시설이다.

위에서 말한 浮流式養殖方法과 海苔綜合處理場의 運用은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 하고 그 技術에 적합한 資源을 결합하여야만 最大의 成果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부류식양식은 적은 시설책수, 극단적으로 1책으로도 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한 漁家經營에서도 채택이 가능하다.

한편 海苔綜合處理場시설은 大量生産을 전제로 한 시설이고 소형 종합처리장일지라도 부류식 100

5) 清光照夫, 企業的 漁家漁業의 存立條件에 關する 研究. 1967. pp.10~11.

책 이상의 시설이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다(표-2참조). 그러므로 종합처리장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시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經營要素中에서 이유희득에 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설은 해태종합처리시설로서 이를 企業經營과 漁家經營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해태종합처리장시설을 분류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해태양식환경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태 건조장 시설을 구비한 企業經營의 경우 종사자수는 9人으로서 全國 海苔養殖業 平均 戶當가족 종사자수 4.7人⁶⁾보다 4.3人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경우 自家勞動者로 충당할 수 없는 他家勞動者(賃金勞動者)에 절반가량 의존해야하고 건축책수도 100책 이상의 규모로 漁家經營의 平均 10책보다 10배의 크기이고, 시설 資本金의 규모도 1천5백만원의 水準이다. 生産力 격차의 結果인 순이익도 漁家經營에 비하여 10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표-2참조).

여기에서 小型 綜合 처리장 시설을 基準으로 하는것은 漁家經營이 生産量을 增加시키려고 할 때는 건축책수를 많이 시설해야 한다. 그러나 全國海苔養殖漁家當 平均家族勞動力(4.7人)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책수는 10~20책 水準이다. 手作業 위주의 經營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책수를 증가하게 되면 가족 勞動力으로 生産에 對應하기가 곤란하므로 加工分野에 機械化가 도입된다. 50柵 시설수준까지는 단순노동대체의 기계화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시설규모일때는 종합처리장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해태 綜合처리장 시설中에서 小型에 對應하는 시설책수가 100책 水準이므로 적어도 해태 綜合처리장 시설은 경영규모를 확대 시키고 生産力도 大量 生産法則에 의하여 增加하여 漁家經營의 性格을 벗어나 企業的 性格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과 展開

1.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

이상과 같이 規定된 企業經營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條件이 필요한가, 또한 어떠한 要因이 成熟되어야 하는가, 먼저 해태양식업과 마찬가지로 가족노동에 의해 영위되고 있고, 생산여건이 유사한 농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農業學者들(특히 大農主義者들)은 大農經營의 成立過程은 農業에의 화폐경제의 침투, 商品生産의 發展, 資本蓄積을 통한 生産力 優위성확보라는 발전과 함께 다른 쪽에서도 小農經營의 분해 소농민의 추방 賃勞動者의 전락이라는 과정이 同時에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고 있다.⁷⁾

이것을 상론하면 農業에서 企業經營의 存立要件인 土地를 포함한 生産手段의 集積과 그에 기초를 둔 生産의 集中을 위해서는 대다수 小農經營의 추방과 추방된 小農經營者의 賃勞動者의 轉落을 필연적인 진행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農業生産의 史的인 過程에서 生産力向上 技術을 채택한 經營體와 채택하지 않는 經營體間의 生産力의 격차가 있게 마련이고, 生産力의 優위성을 확보한 經營體는 發展되어 간다.

農業에 있어서 商品生産의 경쟁의 심화는 농민층을 분해하여 小農經營은 自家勞動 評價觀念이 희

6) 1983년말 우리나라 해태어가경영은 45,605가구이고 從事者數는 214,404名이다.

7) 朴玄採, 韓國農業의 構想, 한길사, (1981), pp.199~236.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박한 상태에서 과도노동과 과소소비로써 대항한다. 그러나 외부의 資本主義 發展이 農村에 침투하면 農民은 스스로 農業所得과 勞動者의 賃金所得과를 比較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 무리해서 農業에 執着하지 않고 그 勞動力을 農業에 판매하는 賃勞動階層이 형성되고 大農經營은 發展된다는 것이다. 결국 企業經營이 탄생되어 發展할 수 있는 條件을 商品經濟를 전제된 한 자본주의 社會에서의 法則에서 大農은 기계화 근대화되어 生産力의 격차가 마련될 수 있는 조건과 농민층의 분해·소멸이라는 조건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서 土地가 私的所有이기 때문에 기계화의 진전이나 生産力向上을 저해시키고 있는 點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과 유사한 해태양식업에서의 기업경영은 어떠한가. 農業과 海苔養殖業과는 類似한 點도 많지만 差異點도 많다. 平澤豊 教授⁸⁾에 의하면 주로 家族勞動에 의하여 生産의 育成을 對象으로 하는 點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點은 差異가 있음을 지적한다.

農業에서는 土地는 私有인데 반해서 海苔養殖業은 水協(漁村契)의 管理下에서 總有的인 性格이 강한 漁場이고, 이 漁場은 매년 변경되는 수가 많다. 또한 農業에서는 施肥하는 것이 生産에 큰 영향을 주고, 密植은 자기의 경작의 작물에 영향이 한정하는 대신에 海苔養殖業에서는 施肥의 효과가 적고 海水의 流動이 영향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漁場에의 密植은 海水의 流動을 방해해서 다른 漁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總合的인 管理가 필요함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이나 해태양식업은 똑같이 生計를 위주로 하는 가족경영으로 영위되고 있지만 농업은 生産物이 主食이고 自給自足的인 性格이 강한 반면에 해태양식업은 가계소비를 위하여 市場을 통한 現金所得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企業經營의 근본목적은 이윤의 추구(자본이윤을 확대)에 있고 이같은 目的이 實現되어 계속적으로 지속될 요건이 마련된다면 資本이 流入되고 기계화가 진전되어 企業經營은 成立할 수가 있다.

해태양식에서 투자자본이윤을 증가가 可能하려면 어장면적, 종업원, 자본의 확보와 같은 生産要素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수준과 이윤율이 보장될 수 있는 가치구성의 실현(市場), 이를 담당하는 주체자(經營者)등이 필요하고 이와같은 要因이 성숙되어야 해태양식 經營은 成立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要因은 産業환경의 경제적 社會的 여건에 의하여 변화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이해하면서 海苔養殖業에 있어서 企業的 經營은 어떻게 成立하는가를 史的 展開過程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展開

우리나라에서 海苔 양식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에 남해안 일대를 中心으로 한 一本漢式 養殖方法이다.⁹⁾

일본홍식 양식은 갯벌에 대나무나 소나무를 꽂아서 海中의 海苔 포자를 부착시켜 生育시키고 채

8) 平澤豊, 日本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1979), pp. 74~76.

9) 박구병, 한국어업사, pp. 136~141

수 산 경 영 론 집

취 加工하는 手作業의 生産形態이다.

간사지의 한정된 漁場에서 주로 自家消費를 爲主로 한 家族生業的 生産이었다. 그것은 200여년이 지난 後의 海苔生産이 30萬枚 정도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도¹⁰⁾ 얼마나 原始的인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韓日合併後 日本은 식민지 약탈 정책의 일환으로 海苔養殖技術轉習所를 세우고(1911~1914) 養殖 加工技術을 보급하여 海苔養殖은 본격화하였고, 1927年の 生産量은 640萬枚로 급증하였다.

그 후 海苔養殖의 生産性 향상을 위한 勞力은 꾸준히 開發되어 持柱를 利用한 海苔育成방법, 漁場관리의 발전 등으로 1930年代의 生産量은 年間 3~6百萬속 수준으로 향상하고, 해방 직전에는 1천만속을 상회하는 水準까지 生産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生産量이 增加된 原因은 日本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植民地 약탈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는 <表-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生産된 量의 90%이상을(88.9~93.6% 정도) 일본에 수출했다는 것에서 알수가 있다.

따라서 영세한 漁家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던 海苔養殖業은 技術향상으로 인한 資本蓄積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手作業 위주로 영위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産業上 중요한 의미는 海苔의 生産力을 향상시켰으며 海苔生産이 自家消費가 아니라 商品으로 生産했다는데 있다.

해방후부터 50년대까지 해태산업은 사회 혼란기로 인하여 生産資材 購入의 곤란함과 아울러 경영 환경의 악화로 생산량이 격감되었다. 또한 수출량은 계속감소되고 한때는 일본수출량은 종래태 생산량의 0.1%까지 격감되었다. 그로인하여 연간 생산 2~5백만 속의 수준에 정체되었다. 1960년대

<표-1> 海苔生産의 變化

年度	區分	生産量 (천속)	輸出量 (천속)	槓當生産量 (속/책)	束當價格 (원/속)	經營體數 (家口)	비 고
1907		300					
1918~1925		705~2820					
1926~1945		3850~12206	2982~7162			27351	
1946~1960		2041~5951	182~5100				
1961~1965		7638~11642	566~2840	27.9~56.2			
1966~1970		8478~18221	2500~5757	23.5~57.9	236~826	35152~38325	
1971~1975		11701~27220	483~3957	39.7~65.1	173~598	35514~41356	
1976		22117	—	66.1	564		
1977		28589	—	89.9	679		
1978		14213	—	32.9	1290	46072	
1979		17130	—	73.5	2027		
1980		30600	—	74.3	2138	37030	
1981		34088	—	80.7	2412	39031	
1982		43166	—	82.8	2006	45605	

※ 공백난은 조사되지 않았음.

資料: 水協 20年史 pp.358~361, 水産年鑑, 全南道廳 資料

10) 鄭文基, 朝鮮의 海苔, (1937) pp.14~19.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에는, 한일회담이후 수출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정부의 해태산업의 지원정책으로 생산량은 7~11백만 속으로 증가되었다. 이와같이 일본의 수출과의 관련하에 발전해온 해태 양식업은 일본의 自國 해태생산자 보호정책에 의하여 수출은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되었고, 우리나라 해태수요에 큰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다가 75년 이후에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요의 불안정속에서 海苔養殖의 技術은 꾸준히 發展하여 오고 있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政府研究機關 및 學界에서 海苔生産에 關한 研究와 養殖資材의 開發로 網筭의 普及, 品種改良, 對病害對策講究, 人工採苗 등의 研究結果가 實用化 단계에 이르러서 海苔生物育成의 生産性을 크게 向上 시켰다.

工業의 發展, 農村電化事業등으로 漁船의 動力化, 채취기 사용, 加工分野의 單純勞動代替的 機械化로써 生産性은 더욱 가속화하였다. <表-1>에서 柵當生産量의 變化를 보더라도 1960년대에 60속미 만이던 것이 70년대에는 60속을 넘고 있으며 1977년에는 90속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성을 향상시킨 기술은 주로 가족노동력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전통적인 養殖方法의 부문적인 기술발전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漁家經營에 대한 확대재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單純再生産에 그쳤다.

이와같은 産業환경의 變化에서 海苔經營體는 어떻게 변하였는가가 중요하다. 結論부터 먼저 말하면 個別經營體의 成長 資本蓄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漁家數만 增加시킨 結果가 되었다.

우선 經營體數 變化를 <표-1>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연이은 經濟開發計劃과 産業의 發展에 의해 1964년부터 農漁村의 人口가 減少됨에도 불구하고, 海苔養殖漁家の 數는 減少되지 않고 1960年代에 35,152~38,325호이던 海苔漁家數는 1971年~1975년에는 35,514~41,356호 水準으로 增加되었고 1978년에는 46,072 (종사자 189,878名)로 오히려 增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 漁場面積의 增加는 미세할 정도이다. 이와같은 現象이 의미하는 것은 漁家經營은 家族勞動力에 의하여 漁家所得向上을 目標로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自家勞動을 절약하는 기계화는 進전하지 않고 오히려 家族數에 제약이되어 漁家經營規模가 확대되지 못하고 결국 消費의 增加의 영향에 淸적으로 經營體數를 增加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故로 因하여 漁場의 밀식현상과 2~3年마다 發生하는 海洋의 不況요인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여 生産이 불안정하고, 傳統的으로 海苔養殖業을 行하지 않는 새로운 地域에서 漁家經營이 參加하였다.

1970년대 中반까지의 地先漁場은 한정이 되어 다수의 漁家에 의해 경쟁적이었다. 더구나 漁家 우선주의적인 政策에서 漁場은 大經營의 준립에 제약이 되었다.

이와같은 漁場條件은 1970年代 中반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1979년부터 본격화된 浮流式 養殖方法에 의해 完화 또는 해결 되었다. 浮流式 養殖方法은 杭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杭木길이 에 제한이 되었던 枝柱式(竹筭式이나 網筭式)에 비하여 漁場이 확대 되었다.

浮流式 養殖方法의 채택은 전통적인 技術과는 또다른 技術을 요하고, 관리방법이 복잡하며 대규모이기 때문에 生計를 목표로 하는 漁家經營에서는 쉽게 채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漁場에 제약 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협업)에 의한 대규모 漁場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한편 韓國人의 嗜好식품인 海苔는 經濟發展에 따라 國民 소득이 向上됨으로써 國內消費가 增加하

기 시작했다. 國內 消費量(또는 生産量)이 增加하며 國民家計에 미치는 비중이 가중됨에 따라 政府가 개입하여 1971년부터는 物價管理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海苔備蓄事業으로 가격을 조절하였다. 국내 수요의 增加에 힘입어 1977년에는 2천8백만속을 상회하였고 海苔 東當價格도 700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1978년의 海苔의 갯병발생과 海황조건의 불리로 生産量이 77년의 절반水準인 1천4백만 東水準으로 감소하자 東當價格은 상대적으로 1,200원을 넘었다. 이에 政府는 海苔産業을 育成하여 漁家所得을 增大하고 價格安定으로 날로 增加趨勢에 있는 海苔製品의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生産性이 높은 浮流式養殖, 冷凍網, 冷凍網저장고와 함께 綜合處理施設을 國內에 補給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해태종합처리장 시설이 도입되면서 企業經營은 탄생되게 된다. 새로 탄생된 企業經營은 漁家經營과 生産性이나 經營規模面에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海苔漁家經營과 海苔 綜合處理場施設 經營과의 比較는 <表-2>에 나타나 있다.

經營은 환경에 따라 규모나 형태등이 다양하고 綜合處理場의 機械도 다양하지만¹¹⁾ 一般的인 것에 限하여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류식 방식에 의한 해태 育成과정의 大量生産에 대응하여 채취 및 가공분야에서도 기계화가 급진전하게 이루어져 대규모 企業經營 존재를 가능케 하였다. 특히 가공분야에서는 加工全工程이 一貫處理되는 海苔종합처리장 시설로써 이것은 漁家經營이 채택하는 단순노동 대체 기계화보다는 資本集約적이고 노동절약적이어서 대량생산에 의한 生産性向上의 효과는 漁家經營과는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2>에서 생산성의 격차를 살펴보면 기업경영은 乾燥加工工程의 기계화에 의하여 生産性이 급증하여 1日 生産量에도 大型은 500束 이상이나 小規模 漁家經營에서는 20束水準이며 東當生産原價¹²⁾도

<표-2> 海苔乾燥施設의 比較

		자동대형건조기	반자동 대형건조기	중형건조기	소형건조기	漁家經營
기계구입가격	(천원)	60,000	42,000	11,000	3,000	
종사 인원수	(명)	6	8	12	9	4
작업장 건물면적	(평)	40	34	15	12	
1일 처리 능력	(束)	700~900	500~700	250	150~200	20
시간당 처리 능력	(束)	15~35	20~22	15	5~10	
시설채수	(책)	500~600	300~400	200~300	100	15
총시설 자금	(만원)	12,000	9,000	4,000	1,500	300
속당 원가	(원)	—	1,114.5	—	—	1979.8
순이익	(천원)	40,000	25,000	7,500	2,500	250
특징		자동, 부류식	반자동, 부류식	반자동, 부류식	반자동, 망홍식 부류식	일광건조 망홍식

資料 : 현지조사

11)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大型自動處理機만도 日産 7機種이다.

12) 拙稿, 海苔養殖技術이 海苔養殖經營에 미치는 영향, 여수수대논문집 17권, (1983), pp.235~237.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1114.5원과 1979.8월으로 차이가 심화되어 순이익의 規模도 정상가동으로써 海苔販賣單價가 2500원 일 경우에 순이익면에서 100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海苔生産原價 構成中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加工勞務費를 機械化로 절약했기 때문이다.

경영규모면에서 漁家經營과 企業과를 비교하면 우선 기계구입비의 차이와 이에 대응한 작업장 시설책수의 차이로 總施設資金의 규모가 大型海苔 건조시설은 1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漁家經營은 300만원 水準이다. 종사인원도 漁家經營은 가족위주의 勞動者이지만 종합처리장 운영은 特殊한 職能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노동이 위주이며 經營規模增大로 勞動者의 절대수도 增加하고 있어 經營規模가 大型化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구입과 大型化되는 시설은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企業經營은 <표-2>에서와 같이 1억원이 넘는 施設資金이기 때문에 政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事業資金의 보조 30%(국비 20%, 지방비 10%), 용자 50%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율을 20%로 하여 海苔冷凍網, 海苔冷凍網 저장고, 海苔浮流式, 큰감김 種苗生産 등 海苔産業에 지원을 하고 있다.

政府의 지원으로 1979年度 전국에 5개소 施設로부터 國內에 보급되기 시작한 종합처리장 시설은 년차별로 80年度에 14個所, 81年 19個所, 82年度에는 39個所로 總 77個所로 增加하였고 이중 全南地方에는 82年末 總 58個가 시설되었다.

1983年末 現在 全南地方의 海苔綜合處理場 施設現況은 <표-3>과 같다.

<표-3> 全南의 海苔綜合處理場施設 現況 1983. 12. 31 현재 <단위 : 개소>

	政府支援			自體施設			合 計			經營體數	乾燥機 補給率 (%)
	자동	반자동	계	자동	반자동	계	자동	반자동	계		
고 흥	2	7	9	2	16	18	4	23	27	5,821	0.5
완 도	0	8	8	10	10	20	10	18	28	13,044	0.2
해 남	0	5	5	50	70	120	50	25	125	2,575	4.9
무 안	3	9	12	12	22	34	15	31	46	450	10.2
기 타	7	22	29	64	64	128	71	86	157	12,519	1.2
계	12	51	63	138	182	320	150	233	383	34,409	1.1

資料 : 全南道廳

<표-3>에서는 소형 乾燥機의 보급댓수는 제외하고 <표-2>의 中型乾燥機 및 大型半自動에 의한 것이 半自動으로 表示되어 있고 83年末 現在 政府支援에 의한 綜合處理場 施設은 63個所이다. 그리고 전체시설 383個所 中에서 83.5%에 해당하는 320個所는 모든 施設資金을 自體的으로 조달하여 施設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自體施設의 대부분도 銀行을 통한 IBRD차관이라는 점에서 政府의 지원이라는 性格을 띄고 있으나 海苔商品의 生産活動을 통하여 利潤을 追求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資金을 調達하고 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 하겠다.

또한 地域的 施設分布는 傳統的으로 漁家에 의하여 영위되어온 地域(완도, 고흥)과 1979年 이후부터 海苔生産이 급신장하고 있는 地域(무안)과는 27~28個所와 46個所라는 절대적 숫자의 차이점

뿐만 아니라 施設補給率(施設經營體數/全體經營體數)에서 0.2~0.3%와 10.2%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全南의 海苔經營體 34,409個所中 383개소가 보급되어 平均補給率 1.1%를 基準으로 하여볼때 最下와 最上이라는 양극의 극단적인 現象이 나타난다.

施設補給率이 높다고 하는 것은 相對的으로 大經營이 많이 分布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地域別大規模經營體의 分布 차이점은 國內消費市場이라는 同一市場과 同一한 行政區域을 전제로 하여 볼때 첫째는 傳統的인 漁家經營에 의한 海苔養殖技術의 固執性은 오히려 새로운 技術을 도입하는데 阻害요인이 된다는 것과, 둘째 海苔養殖의 자본축적 과정에 의한 發達이 어려웠다는 點. 셋째는 大規模經營體의 成立要件의 主要原因이 各地域의 生産的 條件에 있으며 生産的 條件中에서도 漁場面積의 확보라는 點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企業經營이 나타내는 과정을 개략적이나마 史歷的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結局 自然의 狀態에서 手作業에 의해서 시작된 海苔養殖經營은 傳統的으로 小規模 生産體制로써 1970년대까지 漁家經營에 의해 영위될 수 밖에 없었다. 이와같은 원인들을 역사적 과정속에서 정리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産業社會 危弱으로 인한 農漁村의 과잉인구의 잔존과 政策, 둘째 식민지 政策과 수요 및 가격의 不安定으로 단려적 대응책 필요성과 자본축적의 기회상실, 셋째 養殖技術의 低位性, 넷째 資金의 부족, 다섯째 漁場面積의 제약등의 요인에 의하여 農業과 겸업의 狀態에서 농한기에 漁家所得増大의 방안으로 漁家에 영위 될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는 國民所得向上에 따른 수요의 안정적 증가, 海苔生態의 研究로 品種開發, 養殖技術向上 및 고성능 자재의 補給, 海苔産業을 育成하고자하는 政策에 의하여 1978년의 흥작을 계기로 大規模形態의 海苔生産經營이 出現하였고 고도의 生産性은 날로 急成長하고 있다 하겠다.

3. 漁家養殖과 企業的 養殖과의 並存關係

傳統的으로 漁家經營에 의하여 海苔生産이 영위되어 오던 것이 企業經營이 出現됨에 따라서 漁家經營과 企業經營이 並存하게 되었다.

同一한 地域内에서 2가지 經營形態가 병존하고 있을때 이들은 서로 어떤 關係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해서 海苔生産의 形態가 存在하고 傳統的으로 海苔生産을 영위해 오고있는 地域인 전남 금산법인 어촌계를 선정 조사하였다.

이에 對한 結果는 <표-4>에 나타나 있다. 金山 법인어촌계는 14개 자연부락이며 총가구수가 1217호中 海苔양식어가는 1036호이다.

연도는 海苔 生産年度로 表示되어 있으며 1979년은 海苔企業經營이 存在 하기 以前의 狀態이다.

企業經營은 1980년에 大型 半自動綜合처리장 시설과 함께 등장하여 1983년에는 9個業體로 증가하고 시설책수도 1980년 250책에서 1983년에는 3500책으로 增加한다.

이와같은 企業經營의 변화에 對하여 어가 經營은 이 期間동안 海苔養殖 어가수는 1129호에서 1036호로 감소된 반면 시설책수는 9517책에서 10531책으로 增加하였다. 그에 따라 生産量도 269천 噸에서 1552천 噸으로 급증하고 있다.

漁家經營體數가 감소하고 시설책수(양식면적)가 증가한 것은 經營規模가 확대된 것을 意味하여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표-4〉 海苔養殖 漁家經營의 變化(금산법인 어촌계)

구분		년도	1979	1980	1981	1982	1983
총	가 구 수 (호)		—	—	—	1,208	1,217
해	태 양 식 어 가 수 (호)		1,129	1,160	1,100	1,100	1,036
시	설 책 수 (책)		9,517	9,499	9,672	10,298	10,531
종	사 인 원 수 (명)		3,387	3,480	4,292	4,292	4,404
생	산 량 (천속)		269	456	945	975	1,552
생	산 금 액 (천원)		471,445	1,063,932	1,696,143	2,119,673	3,127,650
속	당 명 균 단 가 (원)		1,755	2,332	1,794	2,175	2,016
漁	家當 平均 종 사 자 (명)		3.0	3.0	3.9	3.9	4.2
漁	家當 시설 책 수 (책)		8.4	8.2	8.8	9.4	10.2
漁	家 最高 시설 책 수 (책)		20	20	30	70	100
漁	家 最低 시설 책 수 (책)		5	5	5	5	5
漁	죽 흥 (책)			9,247	8,595	6,496	5,647
村	망 흥 (책)			252	1,077	2,996	4,008
契	부 류 식 (책)					806	876
個	부 류 식 (책)			250	1,710	1,710	3,500
人	경 영 체 수 (개소)			1	5	5	9

※ 금산법인 어촌계는 14개 자연부락(협동회)로 구성되어있음.
자료: 현지조사

이는 漁家當 종사자수의 增加 漁家當平均 시설책수의 增加에서도 어가경영의 확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漁家の 經營규모 확대 현상은 漁家の 부류식 양식면적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漁家에 이와같이 부류식 양식 技術을 채택하게끔 한 主要因은 企業經營의 부류양식 기술의 移轉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한 漁家中에서 최고로 시설 水準이 20책에서 100冊으로 가능케 한 것과 下位技術水準이라 할 수 있는 양식 方法이 上位技術水準인 網篋式으로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상위기술과 하위기술이 並存하고 있을때 上位技術은 下位技術에게 技術移轉이라는 파급 효과로써 企業經營은 漁家經營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1979~1983 期間동안 어가경영의 技術이 向上된 것은 해태용수시설 보유수 증가(89동→134) 채취기 보급댓수 增加(0대→60) 종묘 배양장시설(0→6동) 등이다.

技術이 向上된다는 것은 生産力을 增加시키는 것이고 곧 소득의 증대를 意味한다. 물론 企業經營의 漁家經營에 미친 플러스的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企業經營의 플러스的인 영향은 加工過程에서도 나타난다. 漁家經營은 加工과정을 日光에 의해 건조하므로 만약 날씨가 고르지 못할때는 生産活動을 할 수가 없다.

이와같은 制約을 企業의 遊休 綜合처리시설이 해결함으로써 漁家經營과 企業經營은 상호 利得이

된다 하겠다. 漁家經營은 소득항상과 生苔의 효율적 관리면에서 利得이 있고 企業은 유희자산의 사유으로 고정비 감소 현상과 원가 절감효과에서 利益이다. 이는 어가경영과 기업경영이 並存함으로써 상호간에 나타날수 있는 위험을 分散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企業經營에서 필요한 勞動力이 주위의 漁家經營體에 散在해 있음으로써 季節性에 의한 일시적 고용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勞動力 購入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相互補完의인 關係 이 외에도 相互對立的인 側面도 있다. 漁家經營과 企業經營은 해태라는 同一한 商品을 같은 時期 같은 地域에서 生産하여 經營의 目標을 達成하려고 하기 때문에 相互 경쟁적이고 對立的인 일수 밖에 없다.

해태양식 경영의 필수적인 條件인 어장은 技術의 向上으로 어느정도 확대시켰으나 有利한 立地條件을 갖춘 양호한 어장 확보에는 상호 경쟁적이다. 양질의 저렴한 해태를 生産해야하는 經營의 必要性에서 어업수단인 어장확보는 經營發展의 필수조건이다. 漁場의 한계성에서 相對的으로 부족한 어장은 해태경영의 存立의 條件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한정된 資源일수록 해태 生産수단에 利用될 때는 經營體끼리 경쟁적 일수밖에 없다. 또한 해태 商品의 供給的인 입장에서도 同一한 商品을 生産하기 때문에 價格條件에서 상호 경쟁적이다.

資本主義가 심화된다고 하는것은 이와같은 상호경쟁적 關係가 심화됨을 意味하며 경쟁적 關係에서 不利한 立場의 經營은 탈락이라는 過程을 겪을수 밖에 없다. 漁家經營은 자본주의 法則內에서는 여러가지로 企業經營에 不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멸될 수 밖에 없다.

V. 現段階에 있어서 企業的 海苔養殖經營의 成立限界

1. 海苔養殖業의 特殊性에 起因한 問題點

1) 生物의 育成

해태 生産過程은 생물인 原草를 바다에서 육성하여 이를 채취 加工하여 상품화하는 육성의 기술과정과 채취 및 가공의 기술과정으로 區分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육성의 기술과 採取 및 加工의 技術이 함께 발전하여야만 경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다. 즉 육성의 技術이 高度化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채취의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의 기술만으로는 그 効果를 충분히 기대할수가 없다. 또한 육성의 技術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는 低位 技術水準의 상태에서 가공기술이 고도화 되었다면 해태가공기술의 발달은 在立의 의의가 없을 것이다.

해태의 육성 단계는 對象이 生物로써 海洋인 漁場에서 행하여지므로 漁場環境의 支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해태의 生態에 영향을 미치는 自然的 要因으로서는 水溫 光線 염분 潮流 영양염류 바람 안개 降雪 파도 등이다.¹³⁾ 資本이나 勞働이 投入되어 자연적 요인을 통제할수 없을 경우에는 資本投下 自體가 무의미하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투하된 자본과 해태생산량이 비례하지 않음을 뜻한다.

물론 生物的 要因을 극복하는 技術이 발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支柱式開發, 浮流式, 冷凍網,

13) 姜悌源·高棟表, 海藻養殖, 太和出版社, (1977), pp.27-46 참조.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노출시간 조절, 品種改良 採苗技術 등은 해태의 生態를 利用한 기술개발이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개발은 生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점을 일부 해결했을 뿐이다. 항시 극복하지 못한 일부 요인은 자본투하의 多少와는 無關하게 작용하여 대량생산의 효과를 감소하게 하고 많은 資本의 투하를 방해한다.

生物의 育成段階 特徵의 또 하나는 季節性이다. 海苔의 生産期間은 12月初순부터 3月 말까지이지만 主生産期間은 1~2月로써 한정되어 있다. 季節性 상품이기 때문에 機械化가 되더라도 機械의 사용일수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季節性은 經營體가 보유한 재산의 效率性을 감소시켜 遊休 勞動力이 발생되어 經營의 費用을 증가시키는 要因이 된다.

계절성을 갖는 產業에 對應한 經營은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유희노무비의 발생을 억제케 한다. 반대로 勞動節約的인 機械化는 資本을 固定化시켜 勞動力을 해고할 기회를 잃게 되며 費用加重의 압박을 받게 되고 더구나 凶作일때는 固定費用의 부담은 加重되게 된다. 따라서 계절성은 固定設備投資를 阻害하게 한다.

결국 해태는 生物의 育成과정을 거치게 되고 生物이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資本投下가 자연적인 영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投下된 資本도 자연적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날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資本投下의 효율성을 충분히 획득할 수 없으므로 資本投下가 阻害되고 企業經營이 成立되고 發展하는데 限界가 있다.

2) 不確實性 위험성

해태양식은 해양이 갖는 물리적 특성으로 해태 생산성 향상에 제약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자연적 요인의 변동에 따라 生産量의 확보에도 예측할 수 없이 불확실하다. 해양의 요인이 변화할때에도 그 要因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탄력적,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때로는 변화하는 요인의 정도가 심해서 투하된 노동이나 자본의 量과는 상관없이 생물이 전혀 生産되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폭풍 태풍이나 해일등에 의해서 漁場시설물의 파괴나 逸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규모 경영인 漁家經營에서는 賃金노동자가 아닌 自家勞動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지만 고정자산이 많이 투자된 企業的 경영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정비의 과다로 소규모 경영 보다는 불리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커다란 저해요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해태양식업은 그 成敗를 결정지우는 중요한 과정이 原草의 生産이고 原草의 生産은 생물학적 이용에 기초한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資本기술이나 勞動力이 이를 극복할 수 없는한 자연적 생산력에 제약된 효과는 그대로 양식사업에 파급되어 대량생산 즉 경영규모가 대규모화하는데 本質的으로 저해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

2. 經營管理上의 問題點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는 개별 경영체의 관리능력에 따라 다르다. 현재 기업경영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의 미숙이다.

해태종합처리장 시설이 경영체 자체의 개발이 아니고 외부에서의 도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완전한 기술이 아니고서는 기계화에 대한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특히 全自動 해태 건조기의 경우 어느 한부분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체작업이 모두 중단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에 따르는 응급조치, 조작기술, 고장배제의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全自動의 경우 1日 처리능력이 900束이나 이를 그대로 생산하는 경우는 없다. 대형반자동의 경우도 1日 700束까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 450束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2 참조).

기술의 부족은 生苔育成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류식의 경우 냉동법을 병행함으로써 水溫이 고온이 되는 시기에 냉장고에 저장하였다가 해황이 좋으면 발을 설치하는 병해 대책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적수준이 미숙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냉동망을 회피함으로써 병해가 만연하고 있으며 부류식의 生産性도 저하되고 있다.

해태생산이 生物이기 때문에 發生하는 限界, 불확실성 위험성 등도 그에 따르는 적절한 관리에 의하여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예를 들면 靑島의 靑島(종묘배양), 경영의 다각화, 보험제도 운용, 기술자의 확보등—을 강구하는 것도 관리상의 문제점이다. 經營이 解決할 問題는 管理對象의 모든 문제라고 할수 있다.

管理上の 문제는 經營者の 能力如何에 따라 經營成果도 달라진다. 이러한 것은 經營者の 能力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즉 유능한 경영자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유능한 경영자는 많지 않다. 企業經營이라 하지마는 個人企業이고 小規模일 뿐아니라 自然의 制約까지 받는 海苔養殖經營에 유능한 경영인의 확보는 어렵다. 결국 企業經營의 成立이나 企業經營發展에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經營管理上の 問題點은 海苔 養殖經營이 갖는 本質上の 問題點이라기 보다는 個別經營體가 갖는 個別的 일시적인 問題라고 하겠다.

3. 社會的 問題點

1) 過剩人口

獨占資本主義 段階가 進行되면 1次産業과 2次産業의 發展속도는 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과잉인구는 항상 農漁村에 체류하여 1次産業에 對한 勞動力의 과잉과 低賃金을 가져온다.

이와같은 현상은 기계의 채용을 저해시켜 勞動生産性 向上의 勞力이 방해받고 家計의 所得을 위해서는 勞動節約的 기계화보다는 漁場의 生産性에 勞力하기 때문에 生産力이 增加되지 않는다. 生産性이 낮음으로써 企業經營에 不利하지만 社會與件上 經濟構造上 계속 漁家經營形態로 存續할 수 밖에 없다.

海苔企業經營이 분해된 海苔養殖漁家の 勞動力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타산업(공업 또는 3차산업)에로의 流出이 제약이 된다면 生産權이 있는 漁場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生産性이 낮은 漁場이라도 勞動力을 포함한 소유재산의 投入費用을 低位로 評價함으로써 過渡勞動과 過少消費를 강요하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條件에 關한 研究

여 存續하려 한다. 더구나 漁家經營의 대부분이 農業과의 兼업으로써 농한기에 漁家所得을 확보함으로써 존속의 意志力이 강하게 작용한다.

절대다수의 漁家가 그대로 存續하는 경우에는 漁場의 限界點, 市場의 경쟁등으로 企業經營이 成立하는 要因에 制約이 된다.

2) 政策의 要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 低物價 政策에 편승해서 輸出爲主의 일환으로 海苔養殖産業을 育成하고자 지원하고 있는것은 自力으로 成立할 수 없는 資本蓄積과 低位의 生産力을 促進하여 海苔産業을 育成하고자 하는 政府의 勞力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併行해서 漁家經營에도 새마을 所得增大事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漁家經營을 구축하는 政策은 아니라는 點에서 企業經營에로의 成長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것은 漁家經營體가 모두 分解해서 賃勞動者로 轉落시켜 海苔企業經營에도 흡수할수 없는 海苔産業구조와 우리나라 經濟의 구조속에서도 必然的으로 農業과 兼업상태에 머무르는채 存續할수 밖에 없다.

또한 企業經營의 측면에서도 勞動力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漁家經營을 구축할수 없는 것이다.

V. 結 論(要約및 展望)

以上에서 海苔양식업이 發展해야 할 史的 必要性에서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이 成立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現象을 論述하였다. 이를 要約하고 앞으로의 展望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性格은 利潤을 最大로 확보하기 위하여 資本과 勞動의 生産要素를 合理的으로 結合하여 生産力 向上을 위한 主體的 經濟單位體로써 規定하고 이와같은 性格을 갖는 것을 企業의 海苔養殖經營(企業經營)이라 하였다. 따라서 海苔養殖業에서는 小型종합처리 시설과 이에 對應하는 建築施設 이상을 갖춘 經營을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이라 하였다.

둘째,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이 成立될 수 있는 要件을 漁場面積 資本, 종사자의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結合할 수 있는 技術水準, 市場條件 등에 두고 이들 要因이 成熟하는 과정과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의 成立과정을 살펴보았다. 企業의 經營의 成立過程에서 技術적 문제가 해결되자면 政府의 政策支援이 決定的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 이후는 기존 漁家經營의 형태속에서 漁場의 面積이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또한 企業의 海苔養殖經營이 탄생함으로써 나타나는 漁村에 뚜렷한 階層分化現狀은 없으나 더욱 商品生産의 性格이 強化되고 資本主義 性格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는 모든 漁村契가 成長·發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를 宛明코자 하였다. 거기에는 明確한 限界點이 있다. 즉 海苔가 生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本質的인 문제점과 양식, 가공기술의 不足問題, 經營관리상의 經驗및 能力不足에 의한 問題點, 經營環境要因으로서 社會經濟的 問題點 등의 制約으로 결국 漁家經營에 資本이 投下되고 기계화 되어 發展하는 것을 制限하고 있음을 考

察하였다.

그럼 앞으로의 展望은 어떠하겠는가? 그것은 현재의 技術的 問題點, 管理的인 問題點을 解決하는 程度에 따라서 企業的 經營이 成立하는 條件을 더욱 促進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質的인 問題點을 資本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限 성숙요건의 制限이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要件을 商品經濟法則으로만 評價할 수 없다. 왜냐하면 海苔產業의 本質的인 問題가 內在化되어 生計主義 위주의 海苔生産(所得)의 性格, 과잉인구, 産業社會構造의 취약성 등으로 政府가 보호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漁家經營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리고 企業經營의 성숙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앞으로의 계속적인 企業經營의 成立與否는 海苔産業이 저위의 수준에 있는 한 국가의 정책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張設鎬, 水産經營學, 親學社, 1966.
2. 姜悌源·高栢表, 海藻養殖, 太和出版社, 1977.
3. 朴구병, 韓國漁業史, 正音社, 1975.
4. 朴光淳, 韓國漁業經濟史研究, 裕豊出版社, 1981.
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轉換期의 韓國農業, 1979.
6. 朴玄塚, 韓國農業의 構想, 한길사, 1981.
7. 平澤豊, 日本水産讀本(第2版), 東洋經濟新報社, 1979.
8. 鄭文基, 朝鮮의 海苔, 1937.
9. 熊田新, 技術의 見直しと 今後의 方向, 私達の海苔研究, 第24卷, 淺海増殖研究中央協議會, 1975.
10. 岡伯明, ノリ養殖經營의 存立條件に 關する 研究, 日本水産經營技術研究所, 1966.
11. 清光照夫, 企業漁家漁業의 存立條件に 關する研究, 1967.
12. 堀口健活, 海苔養殖의 小生産的 利用と密植, 漁業經濟研究, 第18卷 1,2號, 日本漁業經濟學會, 1970.
13. 吉田寬一編, 農業의 企業形態, 地球社, 1979.
14. Young C. Shang, Aquaculture Economics; Basic Concepts and Methods of Analysis, Colorado, 1981.

The Conditions of the Entrepreneurial Laver Culture

Youn-Soo Kim

Summary

It has been appeared since 1979 that the pattern of laver culture changes from household management to entrepreneurial management. The typical entrepreneurial laver culture management (ELCM) can be defined as a management by the floating aquaculturing method and mechanical processing system.

Historical studies show that the ELCM could be operated only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① securing capital, labor and aquaculturing farm.
- ② Leveling up of technology to combine these resources effectively.
- ③ Realizing its true value of products for good profits.

In turning from household management to ELCM, there are some obstacles as follows;

- ① Uncertainty, which cannot maintain the merit of mass production because the object of laver culture is living in the sea.
- ② Immaturity of management owing mainly to the lower level of technology and scarcity of competent managers.
- ③ Social problems; lack of aquaculturing farm, overpopulation in fishing village, side-job with agriculture etc.

For these reasons, there has been household management with overlabor and underconsumption in fishing village.

In order that ELCM can enter the stage of maturity, those problems should be solved. Because of laver industrial inferiority, these can be solved by the support assistance of government. As the required conditions in ELCM are filled by the government policy, ELCM are increased recently in its numbers.